

한국을 떠나온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분주한 시간을 보내었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공활을 입어 아무런 어려움없이 지낼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선교팀이 와서 함께 지내는 동안  
먼저 저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들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선교팀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인지  
단기 선교임에도 풍성한 영적 기쁨과 함께 열매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 <기도제목>

1. 펠디와라 교회에 전도의 풍성함과 많은 일군들이 세워지도록
2. 펠디와라 교회의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  
(건물지하에 빗물이 고여 외벽공사와 화장실, 난방공사등)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3. 프르너베니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얻도록
4. 함께 기도하는 교회지도자들이 주님나라 확장에 동역을 이루며,  
귀한 헌신으로 새로워지도록
5. 주일학교를 위해
  - 1) 펠디와라 교회와 아라치 교회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브라쇼브 교회들의 연합 청소년 캠프(1차: 8월 21-8월 26일, 2차: 8월 28-9월 2일)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 2) 아라치 교회의 유초등부와 청소년부가 교회안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 모임을 분리하여 시작하였는데, 각 부서에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 3) 아리우슈드 교회의 주일학교가 잘 세워지도록
  - 4) 안드레이 선교사와 협력하여 시작할 블러데니(Vladeni)지역의 어린이 모임에  
일군된 자들이 먼저 기도로 잘 무장하며,  
주일학교 사역에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 5) 브라쇼브지역의 집시교회들을 위한 교사 양성학교를  
고등학생들의 방학이 끝나기 전(1주일간 연속)에 가지려고 계획하였으나  
여건(강사와 장소등)이 여의치 않아 주말에만 몇주간 연속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히 인도해주시고,  
참석한 사람마다 후세대 사역에 대한 도전과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는 자로 세워지도록

감사합니다